



제 409 호 2015년 12월 9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브라보 안산

Ansan City Newspaper
Bravo Ansan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 blog.naver.com/cityansan](http://blog.naver.com/cityansan)

[t twitter.com/ansancityhall](https://twitter.com/ansancityhall)

[f facebook.com/ansancity3](https://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02면 안산소식

공해없는 대체에너지
햇빛발전소 4호기 준공

04면 생활·경제

안산의 기업탐방 IV
한글세계화 연구소

07면 학교·도서관

을미년 한해 마무리는 도서관에서!
편하지 않은, 편(Fun)한 송년회

13면 종합

어린이 안전
'로보캡 순찰대'에 맡겨주세요



화랑유원지 메타세콰이아길, 단풍이 스러지는 빈 나뭇가지에도 흰 눈이 쌓였다.
가을이 겨울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걸까... 길 끝에는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이름 하나가 서 있을 것만 같다.

공해 없는 대체에너지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햇빛발전소 4호기, 와~스타디움 주차장에 설치

단원구 화랑로 와~스타디움 큰 주차장 3층 옥상에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출자로 건립되는 햇빛발전소 4호기가 최근 준공됐다. 지난 12월 2일에는 4호기 준공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와~스타디움 햇빛발전소에서 열려,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을 비롯해 와~스타디움 시설 관리 기관인 안산도시공사 관계자와 시공업체 (주)광명전기 담당자, 환경단체 연합 회원과 시민, 안산시 관계자, 경기도지사, 시·도·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발전소 4호기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 출자금 5억 원과 금융기관 융자 3억 원 등 총 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주차장 2,000㎡ 면적에 설치된 300kW 태양광 전지 판이 하루 평균 3.5시간 썬 햇빛을 모아 연간

총 38만kWh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4인 가족 1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1kWh 당 200원 썬 한전에 판매해 연간 7천6백여만 원의 수입을 조합에 안겨주게 된다.

햇빛은 태양이 존재하는 한 고갈되지 않는 대체에너지 원이며 햇빛발전소는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와는 달리 전력을 생산해낼 때 CO₂와 같은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친환경시설이다. 이번 4호기 건립이 가져오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180톤에 이르고 이는 소나무 2만7천 그루를 심었을 때 정화되는 양이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는 취지로 환경단체를 비롯한 15개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서 2012년 12월 출범, 현재 578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합은 설립 이듬해 5월과 9월 전액 시민 출자금으로 햇빛발전소 1호기와 2호기를 중앙도서관 옥상에 설치해 가동 중이다. 3호기도 준

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햇빛발전소의 성공적인 건립과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확대와 보급, 교육에 힘을 모으는 것을 주제로 시와 협약을 맺었다. 4월에는 금속노조 SJM지회와 햇빛발전소 4호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조합원으로부터 총 1억9천7백만 원의 출자를 받기도 했다.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은 “안산시민의 호응과 관심 덕에 4호기를 세우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여러분의 참여가 에너지 위기, 지구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는 2016년 1월 ‘에너지 자립도시 안산’을 목표로 ‘에너지 비전 2030’을 선포할 예정이다.

• 문의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031-483-3428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안산시, 민·관이 손잡고 범죄예방을 위한 힘찬 출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가져

안산시는 12월 1일 외국인주민센터 앞 광장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지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 연합회, 원곡본동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2014년부터 법무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2015년에는 전국 28개 지자체에서 신청해 안산시를 포함한 11개 지역이 선정됐다. 대한건설협회에서 2억 원 상당의 현물시공이 이루어지며, 안산시도 자체적으로 1억 원의 예산을,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 연합회에서도 1천만 원을 투입하였다.

안산시는 외국인주민 커뮤니티공간 조성, 어린이놀이터 정비, 다문화축제공간 마련, 완충 녹지대 안전한 산책로 조성, 특구 내 LED 보안

등 정비, 안내지도 설치 총 6개의 사업을 선정하였고, 원곡동 다문화특구지역을 대상으로 전개됐다.

이번 준공식은 시설물 공사부분이 완료돼 진행된 것으로, 올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LED 보안등 교체, 안내지도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인주민센터 김종철 소장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2016년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안전한 원곡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공 :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 031-481-3737



세월호 참사의 극복과 공동체 회복 위한 '2015안산국제심포지엄' 열려

국내외 전문가들 참석해
'회복력이 강한 도시, 안산'의
성공적인 모델 정립 방안 제시



안산시는 지역공동체 회복, 슬기로운 재난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월 26일 원시동 인터볼고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대형 참사의 극복과 공동체 회복', '함께하는 추모 공간 조성', '지역공동체 회복 및 트라우마의 극복' 등을 주제로 안산시와 안산시 트라우마센터가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9·11 테러와 지진 같은 대형 참사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회복력이 강한 도시, 안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정립할 방안들을 제시했다.

1부 세션1에서 '함께하는 추모 공간 조성' 주제 발표자로 나선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추모공원 관련 논의를 '공간의 문제'로 좁히지 말아야 한다고 하며 "추모공원에 대한 논의는 관계회복의 정도에 맞게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유가족과 지역주민이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의 벽을 허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유가족이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과제이며 다양한 차원의 만남을 형성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정자 역할 또한 시민사회의 몫이라고 했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웃주민 역시 트라우마 상태라는 점과 이웃의 도움 없는 추모사업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한혜정 명예교수는 세션2 '세월호 참사 이후 공동체 회복에 대한 제언'에서 우정과 환대의 마을살이에 대해 말하며 목적 지향적이 아닌 느슨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지진과 테러 등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여 세월호 참사와 같은 슬



픔과 아픔을 겪고 이를 치유하고 극복해 나간 나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참사극복 경험과 연구사례 등을 발표했다. 일본 도쿄대학교 도시공학과 히데키 고이즈미 교수는 '큰 재난으로부터 복구 과정 커뮤니티 디자인에서 대지진으로 파괴됐던 마을의 복원사례와 도시공동체 설계의 경험을 소개했다. 지진으로 황폐해진 동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 시의 오츠치 마을은 인근 헤이타 공원에 마련된 주거와 상점, 사무실, 약국, 쇼핑센터, 의료센터, 커뮤니티 정원 등 임시 거주지에서 자치회를 구성해 서로 소통하면서 사회적, 정신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음을 보여줬다.

심포지엄 2부는 '트라우마 센터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싱가포르 창이종합병원 정신과 전문의 안젤리나 쉐 박사는 정신의학적인 장애는 만성적이 될 수 있고, 조기에 관리되지 않는다면 영구히 장애로 남을 수 있으며, 외상사건의 영향은 희생자뿐만이 아닌 주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회복 방법들이 전반적으로 논의됐다.

• 문의 : 안산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 031-481-2998)
안산온마을(트라우마)센터 (☎ 031-411-1541)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자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 보고회 가져



안산시는 지난 11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산의제21실천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숲의 도시, 안산'을 비전으로, '웃음이 가득한 경제도시', '발길이 머무는 생태도시', '이웃이 든든한

공존도시', '마음이 편안한 안전도시'를 목표로 설정하고, 안산시의 지속가능발전 체계와 지속가능발전 지표(SD지표)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보고회 논의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서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반영해 2016년 상반기에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표준에 맞는 지속가능보고서를 등재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절차부터 시민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적합한 국제 프로세스에 따른 지표설정이 중요하다."며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안산시가 국제표준의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본계획'은 지난 9월 유엔(UN)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2030) 17개 지표와 연계하여 2030년까지 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사업계획이다.

• 제공 : 안산시 미래전략관 (☎ 031-481-2480)



안산의 기업탐방 IV

세계를 향해 달리다 - 한궁세계화 연구소



전통놀이인 투호와 전통종목인 궁도의 장점이 접목된 한국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생활체육 '한궁'



전 세계에는 1200여 종의 생활체육 종목이 있다. 그 중 대한민국 최초로 창시형 전통생활체육인 한궁은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에 국제 공인 단체 종목으로 결정, 정식 승인되었다. 흥익인간의 정신을 기본으로 모든 차별을 없애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종목을 정착 발전시키고 있는 안산의 (사)세계한궁협회(회장 : 허광)를 찾아가 보았다.

Q) 한궁을 만든 창시자로서 한궁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A) 한궁(HANGUNG, Korean Hangds Archery, Hands Archery)은 양손운동을 통해 좌우 집중력과 팔의 유연성 및 근력을 키우고 평형성을 증진시켜주는 대한민족에서 만들어진 생활체육입니다. 우리의 전통놀이인 투호와 궁도(국궁) 그리고 서양의 양궁과 다트의 장점을 골고루 접목시켜 만든 창시형 종목으로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인성교육에 더할 수 없이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한궁편을 이용해 양손 각각 5회씩 투구

하여 높은 점수가 이기는 게임으로 투구는 스트레칭운동, 신체의 유연성과 몸의 좌우 균형을 유지하고 어디서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보면 좋습니다.

Q) 한궁을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제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도 같이 쓰러졌죠. 수출위주로 했던 기업으로 금융위기가 오니 힘들더라고요. 그때 가족과 동료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지만 많은 활동을 하기엔 무리인 몸과 기계공학, 건강체육을 공부한 나로서 자연스럽게 생활체육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께서도 노환으로 재활이 필요했던 상황이라 더욱 절실했던 상황이 한궁을 생각해낸 가장 큰 계기라고 볼 수 있죠. 남녀노소 안전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과 만족감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Q) 한궁의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A) 한궁은 모든 연령대가 골고루 할 수 있으며 함께 어우러져 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운동경기대회라 함은 관중과 선수가 분리되어 치러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궁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주체가 되어 치러지기 때문에 경기라기 보단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한궁은 가족과 학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팀을 이루고 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운동 경기이고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화와 참여가 많지 않은 현대사회에서 아주 바람직한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한궁을 세계로'라고 했는데 방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A) 올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스포츠 종목으로 정식 등록되었고 9월에 세계한

궁협회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미 일본의 장애인단체 젠시렌과 협약을 맺고 일본 보급이 진행 중이고 정부가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 브라질 등 3개국을 돌며 진행되는 로드쇼에도 한궁이 선정되어 10월 8일~18일까지 홍보활동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생활체육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지도자, 심판 양성에도 힘쓰고 있고 현재 600여 명의 지도자와 2,000여 명의 심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제가 만들기는 했지만 한궁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안산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온 세계

를 비추는 성화가 되어 '한궁'이 운동경기에 그치지 않고 생활 곳곳에 자리 잡아 활용계가 무한대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회를 시작으로 한궁 전통생활체육이 전 세계 생활 스포츠로 굳건히 뻗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목표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다. 목표한 것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언제나 환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것을 '한궁 세계화 연구소'를 통해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어 광 대표의 노력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 한궁 홈페이지 : hamanabi12.cafe24.com
 김선 명예기자 (itsumo9011@naver.com)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과일·채소



○ 감귤의 효능

- 감기 예방 및 피부미용 효과 : 감귤에는 비타민C, 비타민A, 유기산인 시트르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예방과 피부미용에 좋습니다.
- 동맥경화 예방 : 감귤의 하얀 속껍질에는 루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맛있는 감귤 고르는 방법

- 중간 크기의 귤이 맛이 좋으므로 박스 옆을 참고하여 3~5호의 귤을 구입하세요.
- 껍질이 얇고 단단하며 꼭지가 잘 달려있는 귤이 맛이 좋습니다.
- 주황색 혹은 노란색을 띠는 귤이 맛이 좋습니다.

○ 맛있는 귤청 만드는법

1. 귤청을 보관할 유리병은 물과 함께 냄비에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건조시켜주세요. (이때 입구가 바닥 쪽을 향하게 하고 차가운 물일 때 넣어주세요.)
2. 귤은 껍질을 벗기고 원형으로 4등분하세요.
3. 귤 → 설탕 → 귤 순으로 병에 넣고 마지막엔 설탕으로 윗부분을 덮어주세요. (설탕과 귤의 비율은 1:1로 준비하세요.)
4. 뚜껑을 덮은 후 실온에 2일 정도 보관하시고 중간에 밑 부분의 설탕을 나무손가락으로 저어주세요.
5. 냉장고에서 5일간 더 숙성시키면 귤청이 완성됩니다.
6. 완성된 귤청은 미온수에 타서 드셔도 좋고 샐러드나 구운 절편에 곁들여도 좋습니다.

추운겨울에 생각나는 감귤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

‘정의로운 천하극단 결판’

오세혁 대표의 연극 이야기

“배우는 못난 사람이 못나고 싶지 않아서 못나지 않은 척을 하는 것, 무대에서만큼은 잘나고 싶어서 하는 게 연극이다”



‘정의로운 천하극단 결판(이하 결판)’은 2005년 3월에 창단해 안산을 근거지로 활약하는 젊은 창작집단이다.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를 가장 재미있게 하자!’와 ‘우리 공연이 필요하다면 어디든 간다!’를 기치로 전국 곳곳의 현장, 광장, 극장에서 공연하고 있다. 유쾌·명쾌·통쾌·상쾌한 작품 색깔로 무거운 주제들을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연극을 만들어 보다 많은 관객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극단이다.

특히 2011년에는 ‘제11회 밀양여름공연 예술축제 10회 젊은연출가전’에서 대상과 연출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연출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창단 10주년을 맞은 2015년에는 ‘경기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됐다.

꺼지지 않는 뜨거운 창작열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는 작품으로 관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극단 ‘결판’의 오세혁 대표를 만났다.

Q> 연극인이 되는 게 꿈이었나요? 연극을 하게 된 계기는?

A> 초중등 시절에는 축구를 했어요. 주장, 우수 선수로 뛰기도 했지만 프로리그가 없던 시절에다 대도시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서 축구선수의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갖지 못했죠. 그러다가 소설책과 비디오에 빠지면서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풍물패에 들어갔고 잘난 동기들과 풍물을 치던 어느 날, 과천 마당극 축제에서 좌중을 뒤흔들며 관객과 노는 배우 박철민의 연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연극에 심취하게 됐습니다.

Q> 연극에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A> 연극은 시뮬레이션입니다. 가상현실인거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양하고 스펙터클한 삶을 살기 어렵죠. 자신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 갇혀 변화 없는 삶을 살게 마련이죠.

그러나 연극 무대에서는 변화무쌍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일상탈출, 복수 등

여러 갈래의 삶을 살아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게릴라 씨어터’라는 작품에는 남미 정글에서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는 문맹의 게릴라들이 펼치는 연극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신과 게릴라 둘만 남은 상황에서 연극을 그만하자면 연출자의 권유에 게릴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 연극마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요?”

Q> 연극을 본업으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결판’이 안산은 물론 전국에서 유명한 극단으로 인정받는 비결이 있나요?

A> 서울 대학로에 밀집되어 있던 소극장과 극단들이 점차 지방에서 자리를 잡는 추세입니다. 소극장이 없어지면 소극장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지역에서 다시 서울로, 전국투어와 해외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연극은 공연으로 먹고 사는 직업의 개념이라기보다 ‘업(業)’입니다. 저희 단원들한테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공통의 철학과 언어가 있습니다.

Q> ‘결판’에 대해 좀 더 소개해주세요.

A> 결판은 ‘유랑극단’, ‘게릴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연극에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극장공연은 물론 야외극, 어린이극, 인형극 등 어떤 공연도 가능합니다.

결판 단원들에게 공연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300일 이상 공연을 하며 무대에서 사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외국 희극이나 고전을 무대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현실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창작극만으로 5분 단편부터 100여 편의 작품이 있습니다. 시대 속 이야기,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이 공감하고 속 시원해지는, 나아가 삶 속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관객과 함께 공기를 나누는 생동감이 다시 우리들의 에너지

가 됩니다. 그렇게 즐겁게 연극을 하고 있어요.

Q> 연극을 한다고 하면 보통 배우를 떠올리게 됩니다. 대표님은 현재 작·연출을 주로 하고 계시네요. 연극인으로서 또 다른 목표가 있겠지요?

A> 저는 연극에 관련된 일이면 무엇이든 즐거워요. 작가가 필요하다면 작가를 하고 연출이 필요하다면 연출을 하고 배우가 부족하면 배우를 합니다.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역할은 배우이고, 가장 뿌듯한 역할이 연출이며, 가장 되고 싶은 역할이 작가라고 할까요? 작가는 모든 이야기의 근원이고 모든 연극의 시초잖아요. 그래서 나의 신과 나의 영웅과 나의 연애인과 나의 원수는 모두 작가입니다.

Q> ‘결판’의 향후 방향은?

A> 결판은 연극으로 지속가능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도모’라는 연극단체는 사단법인,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으로 발전해가며 성공적인 극단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문화프로덕션이라는 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배우와 기술, 기획, 회계 파트로 분업화되어 있는 극단으로 여행사까지 운영하고 있어 배우들의 입지가 매우 희망적인 단체죠.

저희 결판은 대학로에 ‘헤화당’이라는 전용 극장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산에 자체 극장을 마련해 시민과 호흡할 기회를 자주 마련할 계획입니다.

• 문의 : 극단 결판 ☎ 031-439-6154
www.gulpan.com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경기장작센터 제3기 안산시 입주작가 작품전

12월 1일부터 단원미술관에서 전시

안산시는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단원미술관 제2관에서 '경기장작센터 제2기 안산시 입주작가 작품전'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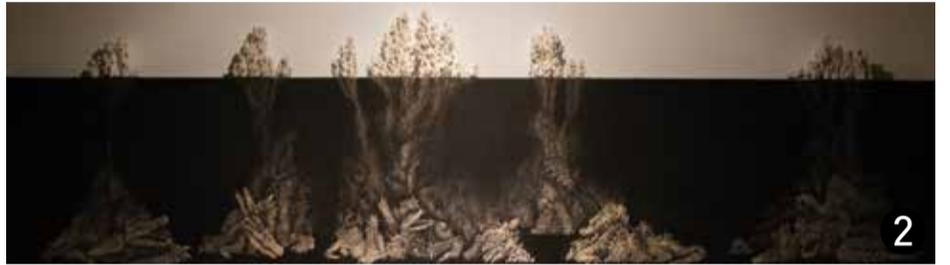
경기장작센터 안산시 입주작가 선정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안산시와 경기문화재단이 협약을 맺어 진행해왔다.

이번 전시는 2015년 1월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3월부터 경기장작센터에 입주해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제3기 안산시 입주작가(정재식, 홍란)들이 입주기간 동안 작업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자리이며 입주기간 동안 작업한 작품 30여 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 ☎ 031-481-2795



1



2



3



4

- ① Monade Emerald (정재식)
- ② Ideal Island - 정지에 먹, 점토 115×300×10, 2015 (홍란)
- ③ 요람으로부터 (정재식)
- ④ Ideal Island - 점토, 가변설치 2015 (홍란)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는 유화작품 전시회

단원미술관에서 오는 12월 15일부터 열려

단원미술관에서는 오는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사제동행전이 열린다.

이번 사제 동행전은 말 그대로 스승과 제자가 같이 전시를 하는 것이다. 2007년도 취미 유화반교실을 시작으로 유화작업을 같이 해온 스승과 제자 사이인 김창덕과 제자 박계희 씨.

김창덕 화가는 매년 개인전을 하면서 혼자 하는 것보다 제자와 같이 전시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첫 전시를 열게 되었다.

김창덕 화가와 유화 작업을 해온 3아틀리에 회원들은 8회째 전시를 열고 있다. 회원전은 물론 매년 김창덕 화가는 회원 한 명과 함께하는 사제동행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동행전이 이번에 열리는 것이다.

무엇을 가리키고 배우는 관계가 아닌 서로 같이 연구하고 대화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로서, 그동안 작업해온 작품들을 전시해 많은 사제 간의 귀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스승과 제자의 작품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다양한 작품 세계를 엿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한다.

김창덕 화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New York Art Fair를 열었고 그 외 3회의 개인전과 한국현대미술 100인 초대전 등 작품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번에 전시하는 '여정'이란 테마의 작품 발표는 그동안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보고 느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서민들의 애환을 화폭에 담았다.

김창덕 화가는 "대중에 이끌려 가는 작가가기 보다는 대중을 이끌어 가는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화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림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치장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고 지금 이순간도 열심히 붓질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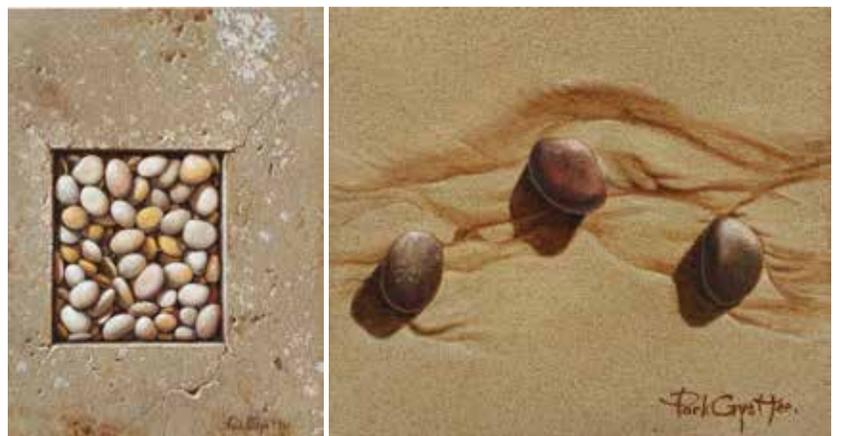
박계희 화가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부터이다. 2회에 걸친 개인전과 다수의 부스전을 열었고, 공신력 있는 단원미술대전의 특선과 기업인 매입상 등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

박계희 화가는 "그동안 다져온 그림의 내면적인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자연적인 소재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모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캔버스에 옮기는 작업도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 완벽하게 붙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유화로 초현실적인 그림을 접목해 표현한 작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여정 1, 2 (김창덕)



기억 속으로 (박계희)

을미년 한해 마무리는 도서관에서! 뻘하지 않은, 편(Fun)한 송년회

2015 안산시 도서관 연말행사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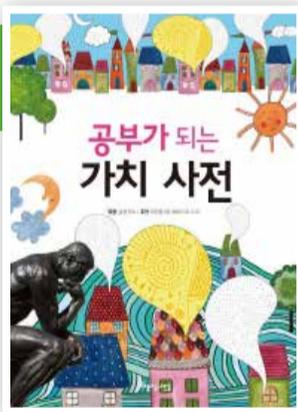
도서관명	행사명	일시	문의
중앙도서관	우리동네 북 리더되기	12.10(목) 10:00~12:00	☎ 481-2702
	서천석 박사의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12.9(수) 10:00~12:00	
	SNS시인 하상욱의 다詩 태어나다	12.12(토) 14:00~16:00	
	은빛독서나눔이 참여아동 초청공연	12.11(금) 18:00~19:00	
	크리스마스 음악회	12.16(수) 17:00~18:00	
관산도서관	부모학교 '스타강사 이호선' 연말특강	12.9(수) 19:00~20:00	☎ 481-2751
	가족연극 '울 줄 모르는 고양이'	12.12(토) 14:00~15:00	
	북크로스 콘서트 앙상블공연&저자특강	12.15(화) 16:30~20:30	
	입시전문가 신동엽의 '백퍼센트 합격전략'	12.17(목) 17:30~18:30	
	연말 음악회 '신나는 음악여행'	12.19(토) 15:00~16:00	
단원어린이도서관	누가 집을 지을까? 원화전시	12.3(목)~12.13(일)	☎ 481-2678
	어린이 뮤지컬 '누사람 이야기'	12.13(일) 16:00~17:00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12.8(화)~12.31(목)	
선부도서관	매직벌룬쇼	12.18(금) 17:00	☎ 481-3888
	나만의 북면가면 만들기	12.19(토) 13:00~16:00	
	캐리커처 내얼굴을 찾아라	12.19(토) 14:00~17:00	
원고잔도서관	X-mas 소품과 머핀 트리 만들기	12.21(월)~22(화) 16:00~18:00	☎ 481-3877
	수리수리 마술리 ² 마술공연	12.23(수) 18:00~19:00	
	도서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기	12.1(화)~12.24(목)	
대부도서관	동화내레이션 캐롤콘서트	12.16(수) 16:30~17:30	☎ 481-3955
	으랏차차~ 순무가족의 커다란 순무	12.15(화) 18:30~19:30	☎ 481-2665
감골도서관	책을 통한 자기 표현법	12.2(수)~12.9(수) 10:00~12:00	

도서관명	행사명	일시	문의
성포도서관	인형극 '선물이 사라졌어요'	12.15(화) 18:00~19:00	☎ 481-2755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 중	12.17(목)~18(금) 16:10~18:10	
	크리스마스 트리에 소원카드 꾸미기	2015.12.8(화)~2016.2.20(토)	
상록어린이도서관	크리스마스 만들기 한마당	12.12(토)	☎ 481-2671
부곡도서관	크리스마스전등만들기	12.12(토) 10:00~12:00	☎ 481-3602
	눈꽃마녀와 크리스마스	12.17(목) 16:00~17:00	
반월햇빛 작은도서관	뮤지컬 '감기걸린 허수아비'	12.16(수) 16:00~17:00	☎ 481-2663
본오1동 작은도서관	마술쇼(매직 인 버블랜드)	12.17(목) 16:30~17:30	☎ 481-3035
본오도서관	가족문화교실 캘리그래피 X-MAS카드	12.12(토) 11:00~14:00	☎ 481-3698
	성인문화교실 크리스마스 치즈쿠키	12.17(목) 10:00~12:00	
	퓨전인형극 - 누가 진짜 산타?	12.17(목) 16:00~17:00	
다문화 작은도서관	멋진 책얼굴 친구들의 재미난 지구별 전시회	12.22(화)~12.31(목)	☎ 481-2661
사2동 꿈을 키우는 작은도서관	꿈키움음악회	12.12(토)	☎ 417-2707
	산타가 되어주세요	12.22(화)	
초지작은도서관	크리스마스 축제	12.19(토) 14:00~16:00	☎ 402-1095
	나눔을 위한 북주머니 만들기	12.22(화) 10:00~12:00	
모두어린이도서관	그림자랑 놀자	12.12(토) 14:00~15:00	☎ 494-3579
신길셋별 작은도서관	시낭송회	12.18(금)	☎ 492-2707
	산타제	12.24(목)	
	도서관 친구의 날	12.17(목)	

※ 도서관 일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책 읽는 안산' 12월 추천도서 1 (주제: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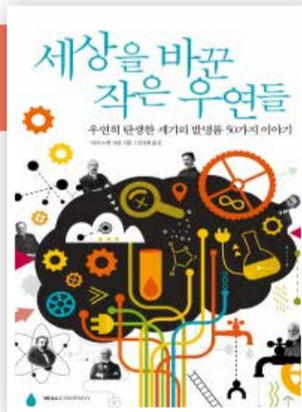
아동



공부가 되는 가치 사전
글공작소 / 아름다운사람들

올바른 가치는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 능력만큼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이며, 최고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생명의 저울을 통해 모든 생명의 가치를 알려 주는 이야기, 열차의 3등 칸 객실과 4등 칸 객실을 통해 생각의 편견에 대해 일깨워 주는 슈바이처 등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 배려, 용기, 창의력, 인내, 노력 등의 가치를 깨닫고 공감할 수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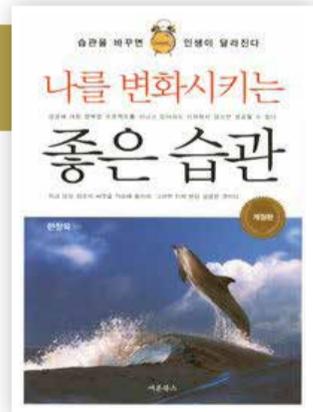
청소년



세상을 바꾼 작은 우연들
마리 노엘 샬 / 월컴페니

세상을 바꾸고 인류를 구한 위대한 발명품들은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우연'이 만나는 순간 탄생한다. 뜻밖의 사실이 알려준 사고, 행운을 부른 실수, 순간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 등 '우연'은 다양한 형태로 과학 역사에 개입해왔다. 이 책은 '우연'의 도움을 받아 탄생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발명품 50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 책이다.

성인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한창욱 / 새론북스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투자컨설팅 회사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저자 한창욱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성공한 한국인에게서 발견한 공통점과 그들에게서 들은 경험담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관산공원' 이야기

관산공원(단원구 원곡동 산 31)은 1998년에 조성됐다. 99,009㎡면적에 원곡중, 관산도서관, 원곡고, 관산중, 원일초등학교와 접해 있는 낮은 산이다.

늦은 오후, 원곡2동 주민센터 옆길을 시작점으로 공원을 한 바퀴 둘러본다. 주민센터 뒤쪽에는 단풍 든 메타세콰리아를 병풍처럼 두르고 초록 지붕에 붉은 벽돌의 관산체육관이 자리하고 있다.

관산체육관은 1993년에 배드민턴과 배구, 탁구, 태권도 등의 여러 종목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산운동장에 건립됐다. 건물 규모는 지상 1층에 지하 1층으로 798.48㎡이며, 배드민턴 4면과 배구 1면의 플로어로 이루어져 있다. 최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은 월평균 3천여 명이 이용한다.

봄이면 연산홍과 철쭉이 나란했을 꽃동산길 계단을 오른다. 계단에 층층이 떨어진 낙엽을 보며 고개를 드니 나뭇가지들이 모세혈관처럼 하늘로 뻗어 있다. 계단 위에 오르니 휴먼지 털이대에서 책가방을 멘 초등학생이 에어건으로

신발에 묻은 흙을 날려보낸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린 듯 말끔히 하루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의 발걸음이 경쾌하다.

관산공원 순환산책로는 어른걸음으로 천천히 걸어도 20여 분 정도면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다. 들레길 아래에서 농구공 튀기는 소리와 남학생들의 재잘거림이 들려온다.

장날 시민시장을 구경하다 공원까지 오게 됐다는 이들도 만나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며 운동을 하는 아낙네들도, 허리춤에 라디오를 매달고 걷는 어르신과도 몇 번째 조우한다. 라디오에서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 걸~'이라는 노래가 어르신의 보폭을 조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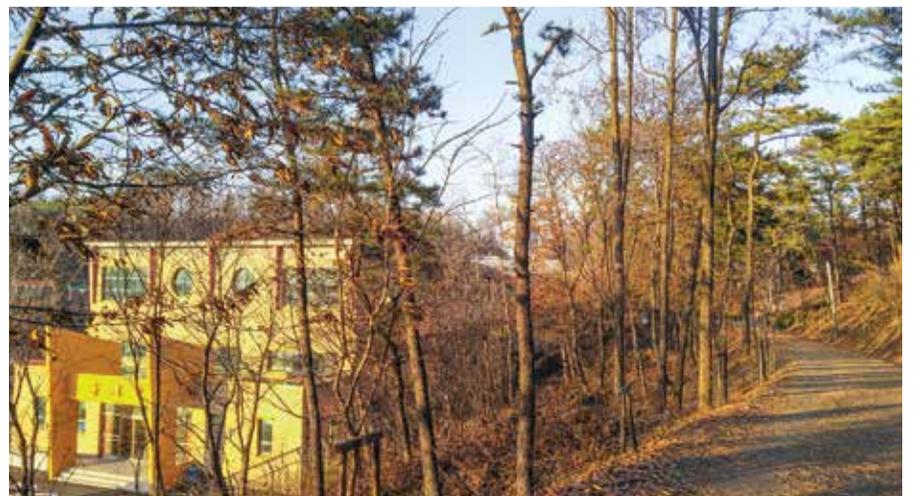
산책로에는 방향지시등이나 화살표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시계방향으로, 나 혼자만 반대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암묵적 합의를 알 수 없는 이방인의 걸음을 의아해하면서도 말을 건넬 듯 말 듯 나를 쳐다본다.

대덕시립어린이집 박용순 마리 글라라 원장수녀는 "매일 오전 공원에서 야외활동을 하며 자연을 관찰하고 열매와 가지 등 자연물로 놀이를 합니다. 자연과 함께 크는 아이들은 인성과 감성은 물론 생명존중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공원이 잘 조성되어 사람이 편하게 다녀 좋긴 한데 한편으로 산에 사는 너구리 한 쌍이 걱정됩니다. 사람들에게 길을 내주고 숨을 곳 없는 너구리들이 겨울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라며 한숨을 쉰다.

돌아오는 길, 근처 중학교 강당에서 사물놀이 가락이 느리게, 점점 빨라진다 휘몰아친다. 팽과리와 징이 하늘로 품어 올라가면 북과 장구가 무겁고 깊은 소리로 끌어내려 긴장과 이완을,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룬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물음을 던진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새소리 들리는 작고 아담한 **시냇공원 & 시냇운동장**



공원에 들어서니 새소리가 들린다. 다양한 새소리가 들리는 것이 여느 공원과는 다른 점이다. 어르신께 여쭙보니 공원이 노적봉 줄기와 거의 맞닿아 있어 새들이 많다고 한다. 지난 여름에는 청설모 한 마리의 재봉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 산으로 들어갔는지 요새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시냇공원은 1992년 부곡동에 조성된 21,994.3㎡의 공원이다. 벤치, 피커러, 화장실, 운동기구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공원이다. 아담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운동장소이고 편안한 쉼터다.

모처럼 햇빛이 따사로운 오후, 시냇공원 벤치에 어르신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다.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온 이웃을 마중하며 안부를 묻는다. 늘 같이 오던 이웃이 보이지 않자 그 사람의 안부도 묻는다.

날씨 춥다고 집에만 있으면 옷을 일이 뭐 있겠냐며 공원에 나와 바람도 쐬고 친구들 만나 웃으니 좋다는 할머니들. 그 웃음 속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살뜰히 챙기는 따뜻함이 묻어난다.

하루자 할머니(80세)는 “공원 인근에서 8년 정도 살다가 저 아래 부곡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도 매일 이 공원까지 30분 걸어서 와요. 친구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요. 갈 때도 30분 걸리는데 이것만으로도 운동이 되지요.”라며 웃었다. 여든이라

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해 보이는 이유를 물으니 매일 운동 삼아 이 공원에 나오기 때문이라며 호탕하게 웃는다.

공원 중앙에는 ‘머나먼 별 B612에서 온 어린왕자가 장미를 찾아 돌아가지 않도록 보살펴 주세요. 라바가 뉴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세요’라는 문구와 동화·애니메이션 속 주인공 캐릭터가 세워져 있다. 단풍을 다 떨거워 낸 막바지 가을의 공원에서 이 캐릭터들은 지나가는 어린이들의 발길을 한 번쯤 붙잡을 법하다.

안쪽으로 들어가니 비둘기 떼가 무리지어 나무 위로 날아올랐다. 할머니들이 앉아 있는 벤치 앞으로 내려오기를 반복한다. 매일 먹이를 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모양이라고 한다.

시냇공원 옆에는 시냇운동장이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시냇공원은 물론 시냇운동장에서도 운동을 한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과 운동장 연결 문이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시냇운동장(32,275㎡)은 본래 1989년 국제 규정에 맞게 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립된 대규모 양궁경기장이었다. 그러나 양궁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경기장의 쓰임 또한 줄어들자 안산시에서 부곡동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시민운동장으로 재건립했다. 인조잔디축구장, 육상트랙, 농구대 등이 갖춰져 있다.

축구장에서는 축구회원들이 축구를 하고,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육상 트랙을 돌고 있었다. 체육 관련 여러 동호회에서 시냇운동장을 대관해 운동을 한다. 시냇운동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달 전에 미리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주민들은 인조축구장 밖으로 난 육상트랙을 이용해 운동을 한다. 한 바퀴 도는데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걸으니 약 5분이 걸렸다. 대여섯 바퀴에서 열 바퀴 정도 돌면 운동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며칠간의 추위를 지나 햇빛이 따사로운 날 시냇공원과 시냇운동장에 시민들의 활기가 가득하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안산별곡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이 되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더불어 살아가며 꿈을
가꾸어 가는 이곳은

사람을 담고 자연을 닮은
안산시입니다

우리 지역의 동아리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함께 달려요! 안산거북이마라톤클럽

“어떤 일을 할 때 끝이 안보이면 길잡이요. 하지만 마라톤은 달려온 거리가 보이고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성과가 보이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어 좋아요.”

안산거북이마라톤클럽 최연소 회원 엄정우 씨(남, 25세)의 말이다.

엄정우 씨는 시험 준비나 어떤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기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 마라톤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철저히 자기와의 싸움인 마라톤을 시작한 엄정우 씨는 대학생이다. 원래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오래달리기를 잘했던 탓에 안산거북이마라톤클럽을 통해 아주 잘 맞는 취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안산거북이마라톤클럽(이하 '안거마')은 현재 40여 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12년 째 운영되고 있는 동호회다. 헬스클럽에서 같이 운동하던 몇몇 사람이 모여 제1회 안산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이후 동호회를 만들어 각종 대회에 참가하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안거마'는 일주일에 3번 정기적인 훈련(수변공원, 노적봉 등)을 하고 있으며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즐겁게 운동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같은 분위기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안거마'는 회원의 절반 정도가 부부회원이다. 여성 회원들이 전체 회원의 반 정도인 셈이다. 특별한 회원 자격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달리기를 좋아하고 긍정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누구나 '안거마'에서 함께 달릴 수 있다.

일주일에 3번 하는 정기적 훈련에서는 선배 고수 회원들로부터 체계적이고 과

학적인 운동 비법을 배울 수 있다.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이고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도 한몫을 하는 동호회이다.

강중원 회장(남, 60세)은 “마라톤은 상당히 힘든 운동이다. 하지만 '안거마'는 속도 위주가 아니라 천천히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나이든 회원이나 여자 회원들도 무리 없이 참가할 수 있는 동호회다. 무슨 운동이든 부부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안거마'는 부부회원

이 많다. 운동하러 전국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하는 운동 겸 놀이가 되어 더욱 좋다.”고 말했다.

박효신 씨(여, 56세)는 “주변에서 같이 해보자며 권유를 해 남편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 풀코스는 아직 완주는 못했지만 하프까지는 달려왔다. 마라톤은 자기 만족이다. 땀 때는 힘들지만 다 뛰고 나면 완주했다는 기쁨이 크다. 또한, 고통을 참고 이겨낸 자신에 대한 대견함도 든다. 동호회를 통해 함께 활동하니 서로 친목을 다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 중독성이 있는 매력적인 운동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회원들은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할 만큼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안거마'는 안산시 마라톤 연합회와 와~스타디움에서 훈련을 하기도 하며 천천히 그리고 즐겁게 달리고 있다.

• 안산거북이마라톤클럽 : <http://cafe.naver.com/turt>
이선희명기자 (iamyoo70@hanmail.net)

브라보안산은 시민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를 매호마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를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 ☎ 481-2042 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축구에 흠뻑 빠진 여성 군단이 몰려온다 안산시 유일의 여성 축구단

“뛰어, 뛰어, 패스해야지 ~~”

부슬 부슬 비가 내리는 오전시간임에도 작은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 활기가 넘쳐난다.

운동장을 누비는 그녀들의 발놀림을 현란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눈빛과 열정은 금방이라도 시합에 나갈 기세다.

안산시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여성 축구단을 만나 보았다.

안산시에서는 2000년도에 여성축구단을 발족, 운영해온 적이 있었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없어졌다. 2015년 다시 생활체육축구연합회에서 여성축구단 회원 모집을 통해 5월 창단식을 가졌고 이것을 시작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사

람들이 모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회원은 40여 명으로 꾸준히 참여하는 회원은 20여 명이다. 기존에 축구를 해봤던 사람들도 있고 처음해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로가 도움을 주고 귀한 시간을 내어 하는 만큼 열정과 패기만큼은 그 어느 단체보다 뒤지지 않는다.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회원들이다

보니 직업들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유치원 교사, 학습지 교사, 태권도 사범, 족발집 사장님 등등... 모두가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면서 일주일에 두 번 모여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할 때면 회원중 남편 한분이 시간을내어 동영상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려주며 격려를 해준다. 체계적으로 축구를 배울 기회가 많지 않으니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꽤 좋은 성과를 내준다고 하니 회원들은 몇 번의 반복시청도 지루해 하지 않는다.

김경숙 단장은 “실질적인 경기는 많이 뛰지 못하지만 운동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도 여러 여건상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웃고 떠들고 운동하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집에 돌아가서 활기차게 생활하니 가정도 행복해진답니다. 가정이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행복해지는 거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운동을 좋아하는 저는 축구처럼 매력적인 운동은 없는 듯해요. 인생과 비슷하잖아요. 공이 내발에서 떠나면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갈고 닦느냐에 따라 목표한 곳에 도달하니 인생의 수업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배움이 되는 이런 좋은 운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하고 싶네요.”라고 말했다.

김선명기자 (itsumo9011@naver.com)
사진 김진국 명기자 (hanmarus@naver.com)



안산시의회 이모저모



안산시의회, 독서문화 확산 위해 부곡고에 도서 기증

안산시의회가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30일 부곡고등학교에 도서 50권을 기증했다. 성준모 의장, 정승현·홍순목·이상숙 의원은 기증 도서를 부곡고 학생회장에게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도서기증은 2013년에 개교한 부곡고등학교에 도서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한 시의회 의원들이 학생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모아 기증하는 데 의견을 모아 이루어지게 됐다. 특히, 새 책을 구입해서 기증하는 것보

다 시의원들이 직접 읽은 도서를 기증하면 학생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 시의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중에 학생들에게 적합한 도서를 선별하여 기증했다. 성준모 의장은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의정, 감동의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서를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

‘예결위 구성 결의안’ 및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 시 외국인반영 촉구 건의안’ 등 의결

안산시의회가 30일 열린 제2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2016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연설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등 예산 관련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을 실시했다. 안산시는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일자리 많은 서민중심의 활기찬 경제도시 구축, △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확립, △세계적인 생태환경 도시 조성,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예술의 도시 구축, △복지 교육 도시 조성, △시민을 향해 열려있는 참여행정 구현 등 7개 항목으로 밝히고, 의회의 협조와 시민

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성준모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회 사상 가장 많은 58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돼 있다”며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만큼 충실하고 섬세한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기획행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하루 먼저 회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며,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21일에는 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산시의회, 제224회 정례회 예결위원장 박은경 의원 선출

간사 이상숙 의원 선임... 1조 3천600억 규모 내년도 본예산 등 심의

제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30일 개회한 가운데 2016년도 본예산 등의 심의를 책임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박은경 의원이 선출됐다. 의회는 이날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에 박은경 의원을, 간사에 이상숙 의원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전준호, 김동규, 김동수, 김재국, 이민근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날 구성을 완료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는 오는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안산시가 제출한 1조 3천649억여 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비롯해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박은경 위원장은 “안산시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게 될 2016년도 본예산 등의 심의가 예정돼 있는만큼 필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아울러 예결위 위원들과 합심해 예산 심의와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성준모 의장, 의회접수 탄원 해결 위해 민원인들 만나

27일, 원곡동 안산전문공구 유통상가 방문 간담회 개최
“상식적인 범위내서 해결책 마련”

안산시의회 성준모 의장이 최근 의회에 접수된 원곡동 안산전문공구 유통상가 관련 탄원의 진정인들을 만나 민원 내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변영희 회원들은 상가동 옆에 입주 당일부터 150여 면의 주차공간이 조성됐지만 사유도 모른채 이용을 못하고 있어 상인들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이 주차공간을 둘러싼 펜스로 인해 차량 접촉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입주율이 30~40%

에 머물고 있는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성준모 의장은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행정당국에 제대로 알려주고, 또 주민들에게는 시 행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달 10분, 소등 했을 뿐인데...”

‘사2동 에너지절약마을 주민원탁회의’ 열려



아파트에서 한 달에 딱 10분씩만 단체로 소등을 하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까.

올해, 동 단위에서 전례가 없는 에너지 절약 성과를 보여준 사2동은 지난 11월 30일,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2동 에너지마을 주민원탁회의를 열었다.

사2동은 2014년에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추진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올 한해 마을에너지 주민 동아리를 결성하고, 청소년 에너지서포터즈와 함께 매달 1일 저녁 9

시부터 10분간 소등행사를 실시해 평균 85%이상의 소등률을 보여줬다. 지난 8월,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에서도 사2동에서만 9개 아파트 5,435세대가 참여해 94.1%의 소등률 결과를 보였다.

실제로 사2동은 올해 8.5% 에너지 감축 계획을 세웠는데, 25%를 낮추는 성과를 거뒀고, 주민들의 6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2동의 전력소비량을 분석한 안양대 이승훈 교수는 “단지별, 세대별, 연도별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특히 2014년도부터 에너지 절약활동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2동은 호수동과 함께 국내외 홍보할 수 있는 전례가 없는 우수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사례”라고 말했다.

조별 원탁회의는 조를 나눈 후 올해 실시했던 활동들을 평가하고, 에너지마을만들기를 지속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도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많은 주민들이 주민동아리와 소등행사와 청소년 서포터즈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한편으로 참여의식을 유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곡초 학부모회 이경미 씨는 “주민동아리 활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소등행사에 동참하며 에너지 절약을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또, 원탁회의에서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토론하며, 참여, 에너지, 아파트공동체, 마을기금, 정보공유 등의 핵심가치를 하나씩 정해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을 고민했다.

최부월 씨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해 동에서 나눔장터 및 바자회 등을 개최해 마을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윤미영 씨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 에너지교육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명숙 씨는 “실용적인 에너지 교육을 통해 실제 가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차지하는 기계들을 알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탁회의가 끝난 후, 참여한 주민들은 포스트잇에 쪽지를 남겨 소감을 전했다. 주민들의 열정적인 마음을 짚은 글에서도 빼곡히 발견할 수 있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시간이 멈춘 곳, 단원고 교실을 걷다

세월호 600일 ‘기억과 약속의 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겨진 채 오직 아이들만이 사라진 10개의 교실은 1년 전 참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빨리 돌아와’, ‘보고싶다’ 는 말들이 빼곡히 적혀있는 칠판과 포스트잇으로 도배된 창문, 말갈게 웃고 있는 아이들 사진과 꽃이 놓인 책상. 아이들 온기를 간직한 교실에는 시간을 멈춘 듯 12월 오후의 햇살만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세월호 참사 600일을 맞은 지난 12월 6일, 단원고등학교와 합동분향소에서는 ‘기억과 약속의 길’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2시 단원고 희생자 학생들의 교실을 둘러보며 시작된 행사는 화랑유원지 합동분향소까지 도보순례를 한 후, 분향소 앞에서 난장문화제를 여는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단원고 학생 250명과 교사 12명이 함께 생활하

던 교실과 교무실을 1시간 30분가량 돌아봤다. 교실에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조용히 울릴 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아이들을 기다리던 지난 4월로 시간이 멈춘 교실에는 아이들의 흔적이 생생하게 담겨있었다. 평소 아이가 좋아하던 과자, 친구와 가족들이 남긴 편지, 작은 화분과 꽃다발들이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교실을 돌던 시민들은 아이들이 공부하던 의자에 먹먹한 마음으로 앉기도 하고, 책상 위에 놓인 ‘기억의 공책’에 추모메시지를 남기며, 아이들을 기억했다.

이날 안내를 맡은 김종천 416기억저장소 사무국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많은 기록들이 사라져 가고, 아직도 세월호 침몰원인조사 밝혀지지 않은 지금,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교실은 부재의 증거이자, 4·16이후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는 사회적 의미를 가진 중요한 장소이며 기록”이라고

했다.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교실을 숙연하게 걸으며 곳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마주쳤다. 등굣길에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 찾아온 아이, 문득 팔이 한 손을 꼭 잡아주던 기억이 떠올라 교실에 찾아온 엄마, 꿈에서라도 자식을 만나고 싶은 아빠. 가족과 친구들이 남긴 수천 개의 그리움들이 손수 떠서 만든 노란 방석과 등방이 위에, 꼭꼭 눌러쓴 이름위에 사무치게 깃들어 있었다.

단원고를 돌아본 후에는 합동분향소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추모문화제를 이어갔다. 분향소 앞 광장에서는 지난 600일간의 활동 기록을 담은 전시와 문화공연이 진행됐고, 엄마의 노란손수건 김연지 회원은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세월호 청문회가 열리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며 “단원고 교실 보존을 위해 부모님들이 매일 11시 반에 도 교육청 앞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동네 청소년들과 함께 행사에 참가한 김부일 씨는 “아프다고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까이 두고 계속 마주하고 지켜보면서 다시는 이런 역사를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며, 단원고 교실 보존의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뉴스 미란다 원칙

브라보안산에 게재된 내용중

문의사항, 반론, 정정 요청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당부서 및

안산시청 공보관실

(031-481-204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은 '로보캡 순찰대'에 맡겨주세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는 불안감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이다. 특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어린이에 대한 범죄의 수위가 날로 높아져 등하굣길이나 집 주변도 안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산시 로보캡 순찰대는 2007년 발생한 안양 이혜진 양과 우예슬 양의 유괴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유괴와 성폭력 등 아동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

성이 대두돼 2008년 7월 발족되었다.

현재 470여 명(여 435명, 남 35명)중 월 평균 50~60명의 대원이 오전, 오후 2인 1조로 총 16개 코스를 순찰하고 있다. 로보캡 순찰대는 학교주변, 공원, 놀이터, 공중 화장실, 우범지역, 주택상가를 집중 순찰하면서 학교폭력을 감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불량식품 단속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교복과 장학금을 전달하고, 아동범죄 예방 연극공연, 캠페인 등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날, 순찰을 마친 정명수(57세, 사3동)씨, 이귀복(60세, 일동)씨, 이원옥(60세, 사동)씨를 만났다. "일주일에 3~4번 활동을 해요. 복장을 갖추고 순찰을 돌다보면 자주 보는 아이들은 반갑게 다가와서 인사를 해요."라고 말하는 정명수 대원.

"순찰을 돌다보면 어르신들이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는 모습을 종종 봐요. 그럴 때면 뒤에서 밀어드리죠. 모퉁이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이들도 저희들을 보면 슬며시 자리를 피해요."라고 말하는 이원옥 씨는 아이들에게 엄마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아이들도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 듣는다고 말한다.

이귀복 씨는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에 아이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비행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심을 갖고 자주 순찰을 하다보면 언제부터인지 아이들이 보이지 않지요."라며 어른들의 작은 관심이 아이들의 비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아이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길이지만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

기도 한다.

한 남자 대원은 순찰활동을 하면서 상처도 받았다고 한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순찰을 돌던 대원 주변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빙빙 돌면서 상스러운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8년이라는 시간을 한결같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보람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순찰 코스를 돌면서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도 하고, 구석구석 애정을 갖고 살피다 보면 발걸음에 저절로 힘이 들어간다.

'지역의 안전을 위해 한몫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은 중년의 엄마들을 계속 견게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아리송한 맞춤법을 알려주는 '브라보 Talk'

김장하는 게 갈수록 힘드네. 오전 10:00

그래도 나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저림 배추를 붙여주셔서 한결 수월했어. 오전 10:00

그랬구나. 어렸을 때는 김장하는 날이면 잔칫집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 오전 10:01

그렇지~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도 힘들어하시니 내년부터는 나도 걱정이네. 오전 10:01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 오전 10:02

맞아. 그동안 늘 받기만 했는데 이번에 보니 많이 늙으셔서 마음이 아프더라. 오전 10:03

전송



저림은 '절임'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절이다'는 ① 푸성귀나 생선 따위에 소금기나 식초, 설탕 따위가 배어들다

② 땀이나 기름 따위의 더러운 물질이 묻거나 끼어 찌들다 등의 표현을 할 때 씁니다.

예) 절임 배추로 김장을 담갔다 / 온 몸이 땀에 절었다

'저리다'는 ①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러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여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

② 가슴이나 마음 따위가 못 견딜 정도로 아프다 등의 표현을 할 때 씁니다.

예) 갑자기 허리가 저리다 / 마음이 저려 온다.

붙여는 '부처'라고 써야 맞습니다.

'부치다'는 ①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로 보내다

②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 등의 표현을 할 때 씁니다.

예) 편지를 부치다 / 안건을 회의에 부치다

'붙다'는 ① 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

② 시험 따위에 합격하다 등의 표현을 할 때 씁니다.

예) 입술에 밥풀이 붙어있다 / 입학 시험에 붙다 등의 표현을 할 때 씁니다.

김은미 명예기자(iami34@hanmail.net)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안산의 첫눈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크리스마스 트리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안산의 첫눈

• **한줄 정보** 11월 26일, 경기 남부 지방에 첫눈이 내렸다. 안산에도 비교적 많은 양의 눈이 쌓이며 이곳저곳을 하얀 눈으로 뒤덮었다.



크리스마스 트리

• **한줄 정보** 올해도 어김없이 안산문화광장과 고잔동 롯데백화점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고 반짝반짝 화려한 빛을 뽐냈다.

"대부도할머니 통합 자서전" 출판기념회 & 북콘서트

엄니들의 이야기

1부
출판기념식
북 콘서트 "엄니들의 이야기"

2부
특강 "세월이 나를 예술가로 만들다"
윤대현 교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안산시여성비전센터 ☎ (031) 481-2761

2015. 12. 18(금) 14:00 여성비전센터 (4층 대강당)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엄니들의 이야기' 북콘서트

〈대부도할머니 통합자서전 출판기념회〉

안산시 여성비전센터는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대부도할머니 통합자서전 출간에 따른 '엄니들의 이야기' 북콘서트를 연다. 이번 자서전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창의기획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대부도할머니들과 매주 미술수업을 진행하면서 인터뷰했던 할머니

들의 소박한 인생이야기를 통합자서전으로 엮은 것으로, 농어촌 지역의 기록문화 유산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그동안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미술작품이 전시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독/자/투/고

내 안의 그리움

안지안

아득한
시골굽길
저어만큼
적막하니 오독한
초막집 한 채
차... 마...
눈물이 나옵니다.
눈. 물. 이.

초저녁
어스름
깊은밤
각두기 모양 문살
공간 가득 노란 불빛
저절로
머리 숙여지고
등 굽혀지는 자그마한 외여달이...
애잔한 노랫가락처럼
깊은 슬픔이
묻어 납니다.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알아두면 유용한 소식 in 안산

〈2015 국가암검진 안내〉

글·그림 이영호(kaljebi05@naver.com)



국가 암검진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연말에는 검진예약이
밀리니 서두르세요~

2015년 국가암 검진 안내

III 검진대상

※ 홀수년도 출생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표를 받으신 분

암 종류	검진대상	검진주기	기본검사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
자궁경부암	만 30세 이상 여성 (단, 의료급여 만 20세 이상)	2년	자궁경부 세포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1년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분변잠혈검사

III 대장암(분변잠혈검사) 팁 : 대변통은 검진기관에 제출

상록수보건소(☎481-5928), 단원보건소(☎481-3469)로 연락주시면 대변통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III 주의사항

- 지정된 검진기관을 이용하세요.
- 기본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연말에는 검진예약이 밀리니 서둘러 병원에 예약 후 검진하셔야 합니다.

III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 무료 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된 경우,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 (☎481-5928), 안산시 단원보건소 (☎481-3469)

찬혁엄마는 암검진 받았어?

받고는 싶은데 돈이 많이 들것 같아서...

아직 몰랐구나. 국가 암검진은 무료라구~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주요 암검진을

지정된 검진기관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어~

또, 국가 무료 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된 경우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준대.

아~

고마워요. 남편과 같이 검진 예약 해야겠어요~

호호~ 그래.

안산시상록구 상상 그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랑 중심 안산특별시

제15회 상록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Christmas







2015. **12.22.** (화) 오후 7시 30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주최 안산시상록구 | 주관 상록구여성합창단



수도계량기 동파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이렇게 관리합니다.

- 수도계량기 **보온상태를 미리 점검**하여 동파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 집을 비우거나 혹한시에는 **욕조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을 흐르게** 합니다.



동파방지 요령

- 계량기실 안에 **현옷을 채우고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또는 혹한 시에는 **욕조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을 흐르게** 하면 동파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 벽체형 수도 계량기는 **현옷으로 계량기를 감싼 후**에 비닐 또는 스티로폼을 잘 감싸고 테이프를 붙이면 더욱 좋습니다.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때 조치요령

- 계량기 및 배관에 수건을 감고 **미지근한 물에서 따뜻한 물로 서서히** 부여 녹이거나
-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여 언 부위를 녹여야 합니다.

※ 화기 및 50℃ 이상 뜨거운 물이 직접 접촉되면 계량기의 고장 및 파손이 됩니다.

자재신청 안내 (보온재 및 뚜껑)

- 안산시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시설과 (☎481-2037)에 신청.
- 수도계량기함 뚜껑은 유상(계량기 구경별 재질에 따라 9,700원 ~ 69,700원) 설치
- 훼손된 보온재(스티로폼 등)는 수도시설과에서 무상으로 설치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주간) 481-2037, 3673 (야간) 481-3715

※ 이 홍보물은 안산시에서 제작하였습니다.

2015 야외스케이트장 눈꽃테마파크

야외스케이트, 익스트림레저

2015. **12.19**(토) ~ 2016. **2.14**(일) (오전10시 ~ 오후 5시)

주소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3번지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네비게이션 검색 시 '안산16교'로 검색)

▶ **야외스케이트 / 얼음썰매**

구분	운영시간	시간
1부	10:00 ~ 12:00	2시간
2부	12:30 ~ 14:30	2시간
3부	15:00 ~ 17:00	2시간

▶ **입장료 (테마파크 1,000원)**

야외스케이트		얼음썰매		눈동산 및 눈썰매장	
사용료	장비대여료	사용료	장비대여료	사용료	장비대여료
무료	2,000원	무료	1,000원	무료	무료

▶ **익스트림레저(유료)**

- 스노우 어린이카트
- 회전목마
- 스노우 트라이웨이
- 풍선다트
- 어린이자동차
- 전통민속놀이
- 어린이기차

※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

문의 | (주)에스엔에이 ☎ (031) 491-3093

ASAC 안산문화재단

2015 ASAC 송년음악회

금난새 &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Nanse Gum & New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금난새

협연, 테너 양민준, 소프라노 서할란

연주,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프로그램,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 1막 하일라이트

베트벤 교향곡 제5번 c단조 작품 67 '운명'





지휘자 금난새

양민준, 테너 서할란, 소프라노

2015. 12. 24(목) 19:3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주최 안산문화재단 관람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080-681-4000